

울산,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

SK건설 · 한국전력기술, 196MW급 설치 제안 ... 2017년 상업운전 돌입

울산에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울산 북구는 SK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이 정자 앞바다에 196MW급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최근 제안했다고 3월7일 발표했다.

양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한 사업은 북구 정자 앞 2.5km 해상, 수심 40m 지역에 7MW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것이며, SK건설은 2012년 하반기 동남권 해안가에서 바람의 양, 속도, 지속 시간, 밀도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자 앞바다를 사업의 최적합지로 판단했다.

SK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은 3월 안에 정자해변에 기상관측탑과 해상정보 수집 장비를 각각 1기 설치하고 정확한 바람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 2015년 착공해 2017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5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총 건설비용은 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어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3월7일 강동동주민센터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어민들은 설명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울산 북구는 주민의견을 모아 SK건설 등과 협의해 사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06>